

## 미국-이란 전쟁 관련 국제기구 동향

- 세계은행, 중동전쟁으로 '26년 에너지 +24%·비료 +31% 가격 상승 전망 | '26-4-28 World Bank

  - '26년 4월 28일 세계은행은 4월 상품시장 전망(Commodity Markets Outlook)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(글로벌 해상 원유 교역의 약 35% 담당) 봉쇄로 일평균 약 1,000만 배럴의 사상 최대 원유 공급 충격이 발생했다고 진단함. '26년 에너지 가격은 24%, 전체 상품가격은 16%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, 브렌트유 가격은 평균 배럴당 86달러(분쟁 격화 시 95~115달러)로 예상됨.
  - 비료 가격은 '26년 31% 상승, 특히 요소(urea) 가격은 60% 급등할 것으로 전망됨. 비료 가격 상승률(+31%)이 식품 가격 상승률(+2%)을 크게 상회하며 농가 비료 구입여력(affordability)이 '22년 이후 최악 수준으로 악화됨. 2021~2022년 비료가격 급등 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(SSA)의 질소 사용량이 9~12% 감소한 사례가 있어, 장기화 시 시비량 감소→작황 부진→식량위기라는 시차 메커니즘이 작동할 가능성이 제기됨.
  - 세계은행은 WFP 분석을 인용하여 유가 100달러 이상이 장기 지속될 경우 최대 4,500만 명이 추가 '심각한 식량 위기'에 직면할 수 있으며, 그 절반 이상은 SSA·MNA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함.
  - ('25년 1분기 기준) 호르무즈 경유 LNG의 약 1/3이 한국·대만·파키스탄으로 향하는 것으로 분석됨. 보고서는 일본·한국 등 동아시아 LNG 재고 수준이 낮아 보충 수요가 누적되고 있어, 향후 동아시아-유럽 간 LNG 확보 경쟁이 가격을 추가로 끌어올릴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됨.
  - ❖ 세계은행은 광범위한 무차별 재정지원 대신 취약가구 대상 신속·한시적 표적 지원을 권고함. 한국도 비료·사료 등 농업 투입재 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농가 표적지원 체계 점검이 필요함.
  
- IEA, 호르무즈 봉쇄로 글로벌 LNG 공급 충격·수급 정상화 지연 진단 | '26-4-24 IEA

  - '26년 4월 24일 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분기별 가스시장 보고서(Gas Market Report Q2 2026)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LNG 공급의 약 20%가 차단되었다고 진단함. 3월 글로벌 LNG 생산은 카타르·UAE 수출 급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% 감소하였으며, 아시아·유럽 가스 가격은 3월 중 2023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함.
  - 카타르 LNG 액화 인프라 피해로 글로벌 LNG 공급 확대가 당초 계획 대비 최소 2년 지연될 전망이며, 2026~2030년간 누적 약 1,200억㎥의 LNG 공급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. 타 지역 신규 프로젝트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2026~2027년까지 수급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  - IEA는 LNG 가치사슬 전반의 투자 확대, 생산국·소비국 간 협력 강화, 장기계약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가격 변동성 완화를 권고함.
  - ❖ 글로벌 LNG 시장 불안정이 2026~2027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, 천연가스를 주원료로 하는 질소계 비료(요소·암모니아) 가격의 중장기 상승 압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.
  
- UN IMO, 호르무즈 위기로 글로벌 해운·식량 공급망 취약성 경고 | '26-4-26 UN

  - '26년 4월 26일 UN 국제해사기구(IMO) 사무총장 Arsenio Dominguez는 미-이란 전쟁 발발(2월 말) 이후 페르시아만 일대 약 2,000척 선박에 최대 2만 명의 선원이 발이 묶인 상태라고 밝히며, 상선이 지정학적 분쟁의 "지렛대(leverage)"로 이용되고 있다고 진단함.
  - IMO는 호르무즈 해협 외에도 수에즈 운하, 바브엘만데브 해협, 말라카·싱가포르 해협, 보스포루스·다르다넬스

해협, 파나마 운하 등 글로벌 해상 요충지(chokepoints) 전반의 취약성을 지적하며, 어느 한 곳이라도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제 무역과 세계 식량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함.

- 신형 위협으로 항행·하역·항만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, 해저 케이블·파이프라인·항만 인프라 공격, 무인기·무인선박을 이용한 공격 등을 제시하였으며, 정보공유·외교적 분쟁 완화·해상법(UNCLOS) 기반 항행의 자유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함.
- ❖ 호르무즈 위기는 단일 해협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해상 요충지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한 사례로, 향후 공급망 안정화 정책 설계 시 다중 요충지 동시 차질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
## ○ FAO, 호르무즈 위기로 글로벌 식량안보·농가 마진 압박 경고 | '26-4-28 FAO

- '26년 4월 28일 FAO Qu Dongyu 사무총장은 제180차 FAO 이사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(통항량 90% 이상 급감)가 글로벌 농식품 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진단함. 중동산 입상요소 가격은 1주일 만에 약 20% 상승하였고, 4월 중순 기준 요소 가격은 미국 +52%, 브라질 +60% 상승함. 이와 함께 월 150~300만 톤 규모의 비료 교역이 지연되어 농업 생산성에 위협이 되고 있음.
- 위기의 4대 경로로 (1) 걸프 국가 식품 수입 차질(주식의 70~90% 수입 의존), (2) 에너지 가격 상승의 식품가격 전이, (3) 에너지·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마진 압박 및 향후 수확량 감소, (4) 남아시아·동남아·아프리카 송금 감소를 제시함. "비료 시비는 작기 일정과 정밀하게 맞물려야 하며, 시기를 놓치면 영구적 수확량 손실로 이어진다"고 강조하며 향후 90일 내 단기 조치로 대체 교역 경로 개발, 시장 모니터링 강화, 에너지·비료 수출제한 자제, 농가 금융지원을 권고함.
- ❖ FAO의 "비료 시비 시기 미스매치에 따른 영구적 수확량 손실" 경고는 하반기 비료 수급 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킴.

## 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### ○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및 부정유통 점검 추진 | '26-4-27; '26-4-30 농림축산식품부

- (유가연동보조금 지원) 농식품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농기계용 면세경유(3~9월분)와 원예시설 난방용 면세유(3·4·9월분)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%를 유종별 한도 내에서 지원
  - 지원 규모: 경유 3.8억 ℓ (529억 원), 난방유 0.6억 ℓ (94억 원)
  - 기준가격(원/ℓ): 경유 1,070, 등유 1,112, 중유 1,116, 부생연료유1호 1,015, 부생연료유2호 1,055, 난방용 LPG 1,197원/kg
  - 지원단가 한도(원/ℓ): 경유 138.4, 등유 143.9, 중유 144.4, 부생연료유1호 131.3, 부생연료유2호 136.4, 난방용LPG 154.8원/kg
  - 신청 방법: 4월 20일~10월 31일까지 농기계(트랙터, 경운기, 콤바인)·난방기를 등록한 지역농협 방문 접수
- (부정유통 특별점검)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.4.~22.(3주간)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면세유 배정·공급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, 위반 적발 시 감면세액·가산세 추징, 면세유 공급 중단, 판매 금지 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임.
  - 농업용도 외 사용, 타인 양도, 폐기·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등도 필요한 경우 조사
- (면세유 가격) '26년 4월 4주 경유 1,494원/ℓ, 등유 1,388원/ℓ,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.6%, 24.3% 상승
- ❖ 유가연동 지원 필요액이 한도를 이미 초과한 상황에서, 중동 불안 장기화 시 현행 지원 체계만으로는 농가 유류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한계가 불가피하여 추가 재원 확보 또는 한도 상향 조정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수 있음.